



# Doctor Q&A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최대한 성의껏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검색하여 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Q 비육후기입니다

생후 28개월의 거세우입니다

현재 벧짚을 구하기 힘들어서 발효처리된 (흰색)랩핑 벧짚을 급여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중요한 것은 혈통이고, 다음이 사양관리 및 환경요인일 것입니다

28개월령 거세우면 출하시기가 다 된 것 같네요. 등급(육질 및 육량)이란 여러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고, 다음이 사양관리 및 환경요인일 것입니다.

그동안 일반벧짚을 급여하셨다면 육질등급에서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료로서 벧짚은 영양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사양관리와 영양소 공급이 되었다면 개체가 갖고 있는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고급육 생산기술에 대한 자료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에 방문하시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아마도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답변자 : 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조원모 박사

전 화 : 033-330-0613

## Q 결석에 대하여...

생후 15개월 정도된 거세우가 아침에 오줌을 누는데 오줌이 약하게 나오면서 약 10분간 10회 정도 나누어서 오줌을 싸는데 소가 힘을 주며 싸는 것 같았고 그 양이 처음에는 적다가 점점 많아져서 그 후에는 정상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약 3회 정도 관찰하였는데 정상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증상을 요결석으로 봐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 A 식품첨가용 염화암모늄을 체중에 따라 10~20g을 한달에 4일간 급여...

요결석의 대표적인 증상은 배뇨장애이며 혈뇨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음모에 결석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음모가 소량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복통으로 인한 발길질, 극심한 통증 등이 나타내며 거세, 음수량, 사육형태에 따라 발생율이 차이가 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요결석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좀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세와 더불어 비육을 위한 농후사료의 다급은 요결석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고급육생산을 위해서는 거세와 비육프로그램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요결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염화암모늄의 급여입니다. 거세 이후 식품첨가용 염화암모늄을 체중에 따라 10~20g을 한달에 4일간 급여하면 요결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음수를 유지시켜야 하고 음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금을 급여하기도 합니다.

답변자 : 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정영훈 박사  
전 화 : 033-330-0630

**Q** 송아지 발육부진에 대하여...

1. 농장의 암소 3두가 초산으로 6월20일, 23일, 7월1일 모두 암송아지를 분만했습니다. 그중 6월20일 송아지는 덩치도 크고 활발하게 움직이며 어미의 젖도 많습니다. 23일, 7월1일 출산한 어미는 젖도 작고 송아지 덩치가 너무 작고 인공유 및 풀의 섭취 및 포유섭취량도 미약합니다. 인근 수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위장 및 소화 촉진제 등을 20일부터 하루 1회씩 주사 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운동량도 적고 멍한 상태로 잘 뛰어다니지도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느껴 집니다. 외상의 흔적은 없습니다. (털빠짐 등은 없음)
2. 6월20일 출산한 어미소가 57일 만에 수정을 하여 사료 및 조사료 섭취는 매우 많고 잘하나 출산 후 섭취량에 비해 비육(갈비뼈가 많이 튀어 나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2두는 괜찮습니다. 무슨 이유인지요?
3. 7월1일 출산한 어미는 임신 당시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할 정도로 배가 불렀으나 덩치는 제일 작아 6월20일 출산한 송아지와 배 정도 덩

치가 작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만약 대용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좋으며 먹이는 방법 및 급여량이 궁금합니다.

4. 수단그라스를 어미 및 송아지에게 급여하고 있는데 베어서 바로 먹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말려서 급여하는 것이 좋은지요?

**A** 분만전후 2~3개월 동안은 평소 급여량의 20~30% 증량 급여하여야...

1-2. 먼저 암송아지 출생을 축하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사양관리를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번식우의 경우 분만전후 사양관리가 중요합니다. 보통 태아는 임신 6~7개월이 지나면서 급격히 성장하여 임신말기에 약 70%가 성장한다. 어미의 일상적인 활동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소 이외에도 태아의 성장발육과 태반의 증가 등에 필요한 영양소를 추가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만후 송아지에게 수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분만전후 2~3개월 동안은 평소 급여량의 20~30% 증량 급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저영양으로 사육하면 어미의 산후회복 지연으로 발정재귀가 늦어지고 분만된 송아지의 생시체중이 감소하며 이로 인한 송아지 육성율이 저하됩니다. 반면에 영양수준이 너무 과다하면 조산 및 난산 등의 번식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산유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영양 때와 마찬가지로 산후회복이 늦고 이로 인한 수태율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산우는 경산우에 비하여 저영양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분만후 어미의 생리상태에 영향을 미쳐 비유 및 번식능력이 저하됩니다. 분만전후를 통

하여 저영양 수준으로 사육한 경우에는 그 영향이 더욱 현저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3. 대용유는 4~6일령부터 급여가 가능하며 급여량은 송아지 체중의 8~10%정도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발육이 늦어지고 너무 많으면 설사와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하루 급여량은 규칙적으로 급여하고 1일 2회가 좋습니다. 희석비율이 중요하며, 물(42도)에 탄 대용유는 85~90%수분이 함유되도록 희석합니다. 대용유를 처음부터 다량급여하면 영양성설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10~20%정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4. 수단그라스는 1차 수확시기는 출수전후, 2차부터는 초장이 150cm이상일 때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장이 120cm이하인 경우 청산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미소와 같이 급여시는 1~2일 예견한 후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자 : 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조원모 박사  
전 화 : 033-330-0613

### 발굽만곡 기형

저희 농장사례가 아니라 마을에서 번식우 3두를 사육하고 계신 아주머니 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20일 송아지를 출산했는데 발굽만곡 기형입니다. 7산째인데 5~7산이 모두 똑같은 증상입니다. 이번은 괜찮겠지 하고 키운 것이 벌써 3년째입니다. 이 증상이 유전적인 것이지요? 1~4산까지는 지극히 정상이었는데 5산째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5, 6산째 소는 지금 건강하게 아주머니 우사를 지키고 있으며 5산째 소는 벌써 새끼를 낳았는데 지극히 건강합니

다. 2대는 정상이라면 유전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6산째 소도 지금 10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굽만곡기형인데도 일주일정도만 어미소 젖 먹는데 도움을 주면 그 후부터는 혼자서도 젖을 잘 빨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출산을 했고 또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5산차 때는 이런 증상이 처음이라 제 소견으로는 힘들다고 보고 아주머니께 송아지를 빨리 포기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절비움기라도 하듯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똑같은 증상을 3년을 겪고 보니 아주머니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어미소를 도태할 생각까지....

이런 증상만 아니라면 어미소의 능력이 좋고 해서 계속 새끼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치유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소 사육환경은 10평 정도의 계류식 우사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음, 어미소의 운동 부족, 농후사료와 볏짚위주의 사양, 기타 비타민제나 광물질 추가 급여는 전혀 없음

혹 비타민제나 칼슘제 등의 부족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요? 수의사께 이런 증상을 설명하니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송아지는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 질 것이며 어미소는 유전적 소양이 많으니 도태하라고... 과학원에서의 사례나 보고가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가 아까워서 꼭 치유방법을 ...

 세레늄과 비타민 E의 합제를 1주일간 투여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음

옆 농장의 문제점까지 신경써주시는 자상함에 감사합니다. 사진이 없어 확인은 곤란하지만 발



굽만곡이 굴건구축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유전적 질병이 아니고 때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미소를 도태할 필요는 없으며 치료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굴건구축

가. 원인 : 송아지의 제 2지관절에 부착되어 있는 굴건이 짧게 태어난 경우

나. 증상

- 송아지의 발목이 굽어 일어나지 못함
- 간신히 일어나지만 발굽으로 땅을 딛고 있음
- 한쪽 다리 또는 양쪽 다리에서 나타남
- 앞다리에서 뒷다리보다 더 많이 나타남

다. 치료

- 구축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다리에 부목 착용 - 12시간 간격으로 풀어서 혈액 순환후 재 착용
- 세레늄과 비타민 E의 합제를 1주일간 투여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음
- 구축이 심하면 굴건을 늘리는 수술을 하여 굴건을 교정함

답변자 : 축산과학원 낙농과 허태영 박사

전 화 : 041-580-3406

Q 목장용지내에서 토목공사에 대하여...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모두 지목이 목장용지인데 골짜기를 끼고 있어서 토목공사가 필요합니다.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목장용지내에서 토목공사를 하려면 어떤 허가를 득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해당부서인 시군청의 농지담당 및 건축담당자와 상세한 상담...

1. 목장용지 안에 있는 골짜기를 축사시설과 관련하여 토목공사를 할 경우는 목장용지가 축사와 그 부속시설인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이곳에서 사육하는 가축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주거목적외의 관리사, 그리고 간이퇴비장, 간이액비저장소를 설치하는 부지로서 이는 농지에 해당됨(농지법 제2조 나목과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
2. 위 부지인 농지에서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나목에서 '가목(저유지, 양수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외의 시설을 대상으로 객토, 절토, 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정하는 시설의 경우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을 농지법시행규칙 제2조 의거 별표1(농지개발시설의 폐지 변경과 토사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고, 성토의 경우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당해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성토해서는 아니되며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해야 한다. 절토는 토사의 유출과 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고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야한다.)' 로 정하고 있어 신고나 허가 없이 토목공사를 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관련 인허가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

르겠으니 위 사항을 참고하여 토목측량설계사무소(무작정 대행해야 된다고 하지 않을 잘 아는 곳에 문의)에 문의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위에 제시한 법적 규정을 인터넷 통합 검색에서 관계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검색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은 관련부서가 아니라 법률 규정을 찾아 제공하는데 불과하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인 시군청의 농지담당 및 건축담당자와 상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 이동현 박사

전 화 : 031-299-2851

**Q** 수정이 들어가지 않아서 도태하려고합니다.

2산짜 암소로 수정을 3번 이상하였으나 수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육을 하려고합니다. 사료 공급방법과 발정 왔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A** 전문가로 하여금 난소 등 생식기검사가 실행되어야...

1. 일반적으로 3번 수정을 시켜서 임신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정상적인 개체가 빈번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발정주기가 21일 간격으로 정확히 오는지, 발정시 발정지속시간은 20시간 전후인지, 번식장애 증상은 없는지, 분만후 후산정체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사항을 치료 등 보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난소 등 생식기검사가 실행되어야 할 것입

니다. 비육을 하면서도 발정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육을 시키면서 이번 발정에는 수정 6시간 전에 배란촉진제 LH-RH나 GnRH제제를 투여해봅니다. 재차 발정이 온다면 발정 10일차에 자궁내에 호밍연고를 넣어주고 발정시 인공수정하도록 합니다. 임신이 되면 비육을 중단하며 임신되지 않고 그래서 계속 발정이 온다면 더 이상 수정하지 말고 비육출하 하도록 합니다.

2. 암소비육은 수소와 비슷하며 농후사료량을 서서히 늘려주다가 일일 8kg이상 섭취하면 자유채식하도록 해주고 벗짚은 늘 먹을 수 있도록 자유 채식합니다. 비육시 청초, 엔실리지, 건초 등 카로틴이 풍부한 사료는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2산 정도라면 체중 550kg 정도에서 출하한다면 좋은 등급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자 : 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이명식 박사

전 화 : 033-330-0625

**Q** 송아지의 급체에 대하여...

저의집 송아지가 배를 차고 헐떡거리며 우유를 거부합니다. 수의사께 연락하니 송아지를 폐렴에 걸렸다고 치료 후 우유를 잘 먹었는데 이번엔 체했다고 하면서 속청을 먹이라 해서 먹었는데 지금도 헉헉 하면서 우유를 못 먹습니다. 송아지가 아픈데 살수가 있겠습니까? 송아지가 오줌은 누는 거 보았는데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걱정되어서 여쭙어 봅니다.



**A** 장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1위 추출물제제, 가스제거제 등을 투여하시고...

식체는 1위 또는 4위, 장내에서 섭취물의 통과가 어려울 때 발생합니다. 송아지의 경우 설사나 다른 질병 발생 후 장내환경이 악화되어 식체에 이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식체가 심한 경우는 외과적 수술에 의해 장내용물을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수액요법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환축의 치료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1위 추출물제제(루멘토닌, 스티몰렉스 등), 가스제거제(쥬락스, 메테오리퀴놀, 가스마인 등) 등을 투여하시고, 제스롱 등과 같은 주사제의 투여도 권해드립니다. 또한 약제투여 후 복부마사지를 실시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치료는 증상에 따라 일일 2~3회, 수일간 지속하여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 치료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수의사의 진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환축을 가장 빨리 치료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답변자 : 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정영훈 박사  
전 화 : 033-330-0630

**Q** 발정일과 유도분만 주사에 대해서...

분만예정일이 1주일쯤 지나 새끼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전문수의사와 상의한 후 분만주사 후 72시간 안에 새끼를 낳는다고 하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초산후 첫 발정이 25일쯤 되니 오는 것 같은데 수정하여도 착신이 될지 여부와 새끼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상담 드립니다.

**A** 분만후 소의 자궁과 난소는 생리적 공태기인 약 30일간의 회복되어지는 시기가...

인위적으로 분만유도를 하는 방법은 전문수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는 부신피질호르몬제제와 프로스타글란딘(prostagalndine)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농가의 경우, 기 처치중이라고 하니 주의깊은 관찰과 아울러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초산우의 첫발정이 25일경에 온 경우 수태가 될 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낮은 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분만 후 소의 자궁과 난소는 생리적 공태기인 약 30일간의 회복되어지는 시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개 분만 후 조기에 오는 첫 발정은 건너뛰고 다음 발정에 수정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자 : 축산과학원 축산기술지원과 류일선 박사  
전 화 : 031-290-1565

**Q** 출산직후 사양관리에 대하여...

출산 직후 설당물을 먹이면 산후회복에 좋다고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당분을 소에게 공급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미소가 송아지를 출산할 때 어미소가 허약할 경우 많은 대사량을 수반하는 생체에서 균형이 깨지기 쉽고 이로 인하여 식욕절폐나 기립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만에 따른 소화관의 운동기능은 매우 중요한 대사과정을 거치며 어미소가 많이 힘들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소화

기관의 운동은 연동, 분절 및 긴장운동 등이 있는데 이것 중 한 가지라도 문제가 되면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과 같이 무더운 날씨에 분만한 암소가 문제가 있을 경우 포도당을 이용하여 활력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당의 농도는 가급적 5-10%를 이용하시고 정맥주사가 힘들다면 먹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당분을 소에게 공급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산후회복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분만전과 분만직후에 식욕이 감퇴되는 주요한 원인은 어미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태아에게 많은 양의 영양소를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설당물을 급여하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분만을 하고 분만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설당물을 급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답변자 : 농협중앙회 축산사료연구소 정준 박사  
(dohjeong@paran.com)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 홈페이지 전문가 상담코너

**Q** 신생송아지 2-3개월 후 예방접종 있나요?

신생송아지 2-3개월 후면 초유의 면역성분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후 병치레 없이 건강한 송아지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방접종은 따로 있나요?

**A** 1차 접종 후 1개월 뒤에 2차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신생송아지 초유항체가 저하되는 시기는 농장의 사양수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미소들의 초유양과 질에도 차이가 있지요. 초유양이 많고 질이 좋다면 면역 저하 시기는 생후 3개월령 이후에나 다가오겠지만 초유양도 적고 질도 떨어진다면 생후 1개월도 안되어 그 시기가 일찍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장에선 신생송아지들의 호흡기질병이 어느 시점에 주로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1개월령에 발생한다면 1개월령 전에 접종해야 하겠고 3개월령에 발생한다면 그 직전에 접종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접종하는 백신은 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전염성호흡기질병중 중요한 IBR, BVD, PI3 3종 혼합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각 회사별로 상품명에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가까운 가축약품 판매처에 가서서 구입해서 접종하면 됩니다.

1차 접종 후 1개월 뒤에 2차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예방접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선 2차 접종 후 6개월마다 보강접종을 한번씩 하면 됩니다.

답변자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임연수 가축병원장  
전 화 : 041-661-4680

**A** 번식우 등의 털이 일부 빠져서 듬성듬성합니다.

발정이 여러번 오고 수정도 여러번 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8월3일날 또 수정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재발정은 오지 않으나 소의 등에 털이 일부 빠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감기를 자주 앓았고 버짐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구충제도 먹었는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은 방 소는 건강하고 괜찮은데 혹시 첫 출산하면 송아지도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요?

**A** 소는 1년에 1-2회 정도 기생충 구제를 해야 합니다

소의 털이 빠지는 이유는 실로 많은 이유에서 털이 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소는 털과 피부가 매끄럽고 탄성이 있지만 만성질환, 기생충성 질환에 감염되면 영양상태가 좋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피부가 거칠고 탄성이 저하되어 탈모가 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부분적 탈모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는 1년에 1-2회 정도 기생충 구제를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구충한 것은 성장한 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탈모의 여러 원인들 중 대표적인 것들은 만성적인 대사성질환, 내분비장애, 영양불균형, 중독증세(주로 광물질), 계절적인 원인(환절기), 외부 기생충(이, 옴, 벼룩)등입니다. 그러나 탈모가 진행되는 현상만 가지고는 탈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정확한 탈모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허약한 육성기를 보냈고 수정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양의 부족에 의한 탈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내외부 기생충을 구제하고 영양상태를 좀더 강화하기 위하여 농후사료 급여량을 약 20%가량 늘려주고 지용성비타민제제와 균형된 무기물혼합 주사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탈모의 원인은 털이 빠지는 부위의 조직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으므로 주변의 수의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자 : 농협중앙회 축산사료연구소 정준 박사  
(dohjeong@paran.com)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 홈페이지 전문가 상담코너

※ 위 내용은 축산과학원(<http://www.nlri.go.kr>) 및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http://www.limc.co.kr>)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한우농가에서 경영과 사양관리함에 있어서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